

# “같이 고생했는데 다른 결과”... 제외업종 추가대책 관심 집중

## 손실보상 형평성 논란

신속보상 대상자 78% 보상금 지급  
숙박·여행 관련업 보상 지지부진  
현금지급 등 직접지원 가능성 낮아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액이 80%에 육박하며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주께 나올 손실보상 제외 대상 업종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당한 업종들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지만 숙박, 전시·행사, 여행업 등 관련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상은 전날 12시까지 61만 4619개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약 49



지난달 26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개에 1조4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 단계를 각각 거친다.

전날까지 신속보상 대상자에게 주기로 한 총 1조8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약 78%를 지급한 것이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조4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절차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았던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청, 군청, 구청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

가 다른 만큼 확인을 한 뒤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1일은 4, 9번, 12일은 5, 0번 등의 순이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 창구에서 확인보상 신청을 할 때는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그리고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빠진 숙박, 예식, 전시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하의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 여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미술관, 키즈 카페, 전시서비스업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손실대상에서 빠진 업종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이 필요하

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같이 ‘현금 지급’ 등 직접적 지원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간접적 지원책이나 소비 쿠폰 등을 통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편 손실보상이 진행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볼멘 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사업자는 “정부는 당초부터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각각 사업자번호의 매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법인이 각각 다른 사업자번호로 운영하는 두 개 매장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개인사업자는 되고, 법인사업자는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 선정

1차 4차산업, 2차 AI분야 35개사 선정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미래 개척”

대기업이 낸 숙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할 스타트업 35곳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차 4차 산업혁명분야, 2차 인공지능(AI) 분야 참여기업 3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공모를 시작한 올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는 총 207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6개월 동안 평가를 거쳐 참여사를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우 신세계푸드가 최근 화두인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생분해 밀키트 포장재 기술 개발’ 과제를 제안했다. 이 분야에선 목재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

해 고기능, 생분해 포장재 개발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이 주목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지원사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해 뛰어난 화질과 압축률을 자랑하는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을 선보인 스타트업이 최종 선정됐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대 및 알림장치 개발’ 과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한 실시간 EHS(환경·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을 아이템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뽑혔다.

AI 분야에선 LG AI연구원이 내놓은 ‘소음 검사 기반 불량 부품 검출 시스템 고도화’ 과제에 지도학습 기반 비정상 데이터 분류 및 준지도학습 기반 이

상감지 모델을 활용해 불량 부품검출 모델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료 가격 예측 모델 개발’ 과제를 제안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유연한 가격 예측 모델을 제안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올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된 혁신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만 있다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중기부는 새로운 상생협력 정책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확대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ESG 가치 실현 사례 전한다

AVPN 동북아시아 씨앗 참가  
‘탄소ZERO 솔루션’ 소개

CJ대한통운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 ESG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AVPN 동북아시아 씨앗’에서 친환경 ESG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CJ대한통운은 11일 AVPN 동북아시아 씨앗에서 민·관·학이 함께한 패널 토론 세션에 참여해 ‘컬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ESG 가치 실현’을 주제로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최대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AVPN(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에서 여는 ESG 컨퍼런스로, 동북아시아 지역 E

SG 분야의 리더·실무자들이 모여 모범 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CJ대한통운이 이번에 발표하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CJ대한통운은 ‘탄소ZERO 솔루션’을 대표 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탄소ZERO 솔루션은 고객사, 소셜벤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고 실질적인 탄소 저감을 이루는 친환경 ESG 활동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폐페트병 업사이클링 유니폼 제작 ▲폐플라스틱 재생 파렛트 상용화 등이 꼽힌다.

/김승호 기자

## 한진, 페트병 재생섬유로 동계 유니폼 제작

직원·협력업체 배포

(주)한진이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진은 페트병 재생섬유를 사용한 친환경 동계 유니폼을 제작해 전 직원 및 택배 기사, 협력업체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유니폼은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의류다.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유니폼 2만5000여벌 중 외피 점퍼 1만2000여벌을 만드는 데는 1.5t 투명 페트병 25만개가 쓰였다.

한진 관계자는 “친환경 유니폼을 만



한진 직원들이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유니폼을 선보이고 있다. /한진

드는데 들어간 페트병의 무게는 총 7500kg으로 이는 매립 및 소각을 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15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 中企 협동조합 회원사, 일반기업보다 경영성과 ‘우수’

중기중앙회 평균 부가가치 두배 달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순이익률, 총자산 등에서 뛰어났고 임직원 급여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회원사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

조합 업종별 회원 1075개사와 비회원 5115개사의 2017~2020년 재무제표를 비교해 10일 내놓은 ‘경영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 가입 기업의 평균 부가가치는 31억5000만원으로 16억3000만원인 비조합원사보다 월등했다.

순이익률 역시 조합사가 2.5%로, 비조합사의 1.8%보다 0.7%포인트(p) 높았다. 총자산규모도 조합 소속 기업이

69억6000만원으로 일반 기업(66억30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많았다.

임금 등 대우도 조합원사가 비조합원사보다 좋았다.

임직원을 평균 급여는 조합원사가 3480만원으로 비조합원사(3410만원)보다 70만원 높았다. 평균 종사자수는 조합 소속 기업(36.8명)이 비조합 기업(24명)보다 많았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홍남기, ‘요소수 재고시스템’ 제안에 “좋은 아이디어”  
▲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사진 뉴시스



▲ 올 수능 ‘가림막’ 없이 본다...점심때만 칸막이  
▲ ‘개별계약’ 안센 백신 140만1000회분 오늘 국내 도착 /사진 뉴시스

▲ ‘개인정보 유출’ 무신사 등 7개 사업자에 과태료 4천560만원  
▲ ‘암환자 등 거저질환자, 유산균 복용 부작용 주의’